

미국-EU 무역수장 '50% 관세유예' 하루 만에 통화 재개

EU "합의에 건설적 노력 계속" '추가 양보안' 제시 가능성 전화 통화 내용은 아직 미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대한 '50% 관세' 부과 시점을 약 한 달간 유예하기로 동의하면서 양측간 협상이 일단 고비를 넘기고 새 국면을 맞았다.

EU는 급한 불을 껐다는 데 안도하면서 미국과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협상 타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26일(현지시간) 오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좋은 전화통화"를 했다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집행위는 EU-미국 합의를 향한 건설적이고 집중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일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연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통화는 지난 23일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예고한 50% 관세 부과를 미뤄 달라고 요청해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한 지 하루 만에 성사된 것이기도 하다. 50% 관세 조치는 7월 9일로 미뤄졌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설득이 일단은 통한 셈이다.

파울라 힌호 집행위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협상을 가속하기로 합의했고 정상 간 연락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합구한 채 "협상의 새로운 동력이 생겼고 정상급에서 관여가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라며 "우리는 늘 그랬듯 협의를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협상 지연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50% 관세 카드를 꺼내든 만큼 일각에서는 EU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양보안을 더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집행위는 이미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를 비롯해 미국산 에너지, 무기, 일부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제안한 상태다.

올로프 길 집행위 무역담당 대변인은 협상안 관련 질문에 "여전히 상호 무관세 제안이 좋은 협상에 도달하기 위한 매력적인 출발점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추가 양보안" 제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함구했다.

집행위는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VAT)처럼 EU법 체계 자체를 건드리는 건 불가능하며 영국처럼 미국의 기본(보편)관세 10%가 유지되는 것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미국은 세계 각국과 관세협상에서 기본 관세를 일종의 '하한선'으로 정하고 협상하고 있다. EU 주요 회원국들은 조속한 합의 타결을 촉구했다. EU 27개 회원국 무역정책의 결정권은 집행위가 쥐고 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기자들에게 EU-미국 간 관세협상이 성공적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가장 호혜적인 무역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관세율이 최대한 낮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장관은 "해결책을 찾을 시간이 6주 남았다"며 "그 시간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대서양 양쪽의 원활한 무역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현지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리버풀의 우승 축하 퍼레이드 행사에 운집한 팬들에 차량이 돌진해 수십 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리버풀 EPL 우승 퍼레이드에 승합차 돌진...47명 부상

차선 바꿔 군중 쪽 직행 아수라장 영국인 53세 용의자 현장 체포

공휴일인 26일(현지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리버풀의 우승 축하 퍼레이드 행사에 운집한 팬들에 차량이 돌진해 수십 명이 다쳤다.

사건을 일으킨 53세 백인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일단 이 사건이 테러는 아닌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영국 리버풀의 워터스트리트에서 소형 승합차 한 대가 보행자들 쪽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최소 47명이 다쳤다. 20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고 27명은 병원으로 후송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 중에는 어린이도

4명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어린이 1명, 성인 1명 등은 중상을 당했다고 현지 구조당국은 밝혔다.

최근 통산 20번째 우승을 확정지은 리버풀 선수단은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이날 '스프링 뱅크 공휴일'을 맞아 천장 없는 버스에 타고 시내 중심가를 지나며 팬들에게 우승 트로피를 선보였다. 이 모습을 보기 위해 10마일(약 16km) 구간의 도로 양쪽으로 수십만 명이 운집했었다.

일간 가디언은 이날 사건이 주요 퍼레이드가 끝난 후 도로 통제가 해제된 직후 발생했다고 전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달려며 보행자 한 명을 친 뒤 차선을 바꿔 아예 군중이 몰려있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고 그대로 돌진한다.

이 차량은 군중을 차로 밀어버린 뒤 스스로

멈췄다. 현장 근처에 있던 경찰이 즉시 개입해 운전자를 체포했다.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시민들도 멈춰선 차량을 향해 몰려들어 창문을 부서며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AP통신은 부상자 가운데 4명은 이 차량에 깔려 있다 구조됐다고 전했다. 차량에 깔린 피해자 중 1명은 현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근무 중인 구급요원이었다.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당국이 차량을 들어올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경찰은 "체포된 남성은 리버풀 출신 53세 백인 영국인"이라며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누군가와 연관성이 없는 단독 사건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트럼프 금주 대리제재 검토...압박 안통하면 중재 포기"

WSJ "휴전 협상에 실패 증 느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러시아를 추가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압박이 통하지 않으면 종전협상을 포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리 추가제재를 거론하면서도 협상 중재에서 손을 놓을 듯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대대적으로 올렸다. 이에 맞서 서방 핵

심 지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무기에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면서 협상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다.

WSJ는 북측의 소식통을 인용, 이번 제재에는 은행 부문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압력을 가할 다른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협상에 실패를 느끼고 있으며 그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압박이 효과가 없을 경우 협상을 완전히 포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푸틴 대통령이 완전히 미처버렸다든 격한 표현을 쓰며 대리 추가제재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에는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뒤에는 뭔가 진전이 없다면 물러날 것이라는 말도 했다.

WSJ는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등 측근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푸틴 대통령은 협상 타결을 원하지 않으며 그를 진지한 협상에 임하게 하려면 압박밖에는 답이 없다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북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현황

() : 등재연도, 자료 : 유네스코

① 고구려 고분군(2004) ② 개성역사유적지구(2013) ③ 금강산(2025년)

5월 27일 현재 세계유산위 자문기구서 '등재' 권고, 7월 6일~16일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등재 확정시 북한의 3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인정 등재 신청 4년만 (2021년 신청)

세계유산 16건 등재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 등재시 17건)

연말뉴스 자료 : 유네스코

북한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전망

2개 자문 기구 '등재' 권고 판단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풍광으로 '명산'으로 꼽히는 북한의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될 전망이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북한 측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금강산에 대해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식 명칭은 '금강산(Mt. Kungang - Diamond Mountain from the Sea)'입니다.

북한은 2021년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냈지만, 당시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평

가·심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올해 평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금강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유산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유산은 이코모스와 IUCN이 평가·심사한 뒤 '등재'·'보류'·'반려'·'등재 불가' 등 4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택해 세계유산센터와 당사국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자문 기구는 신규 세계유산 등재를 권고하고 "해금강 지역의 해안물상, 총석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등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이번이 없는 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된다. 연합뉴스

전용기서 부부싸움?...얼굴 맞은 마크롱 포착

마크롱 "아내와 장난친 것"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베트남에 도착한 직후 전용기 출입구 안에서 부인 브리짓 마크롱 여사에게 얼굴을 맞은 장면이 포착돼 갖가지 추측을 낳고 있다.

미국 AP 통신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탄 전용기는 25일 밤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착륙했다.

전용기 출입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있던 마크롱 대통령의 옆모습이 나타났다. 곧이어 마크롱 대통령이 몸을 돌린 방향에서 빨간 소매의 팔이 나오더니 마크롱 대통령의 입과 코 부위를

밀쳐 낸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다는 걸 알아챈 마크롱 대통령은 외부로 향해 태연한 척 손 인사를 하며 웃음을 지어 보인 뒤 정색하고 곧바로 카메라 앵글에 잡히지 않는 전용기 내부로 들어갔다.

잠시 뒤 마크롱 대통령은 다시 전용기 출입문 앞에 나타났고 그 뒤를 따라 빨간 소매의 주인 공 브리짓 여사가 등장했다.

브리짓 여사는 처음엔 웃고 있었지만 이내 표정이 굳어지더니 마크롱 대통령이 에스코트 차원에서 살짝 내민 오른팔도 무시했다. 이 영상은 소셜네트워크상에서 빠르게 확산

하며 여러 추측을 낳았다.

게시된 영상에는 "가장 폭력의 희생자인가", "모든 프랑스인이 꿈꾸는 걸 브리짓가 해냈다" 등 조롱하는 댓글이 무수히 달렸다. 과거 두 사람이 스승과 제자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교사가 학생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댓글도 달렸다.

마크롱 대통령의 한 측근은 일간 르피가로에 이 상황을 커풀 간의 '평범한 말다툼'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측근도 취재진에게 "대통령과 여사가 순방 시작 전 마지막으로 긴장을 풀기 위해 장난치며 시간을 보낸 순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두 사람만의 친밀감이 묻어나는 장면이었는데 이걸로도 음모론자들에게 충분한 소재가 됐다"며 부정적인 댓글들은 주로 진리시 아 계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